



“박영훈, 기성 타이틀 내 놔”

‘독사’ 최철한 9단, 김승준 꺾고 도전권 획득

내달 2일 박영훈 9단과 2년만에 ‘리턴 매치’

‘하나도 없다. 가진 것은 오직 하나뿐이다’

최철한과 박영훈이 국수 타이틀도 세계 메이저 대회도 아닌 현대자동차 배 기성전을 놓고 절박한 출사표를 던졌다. 둘은 다음달 2일부터 도전 5번기로 자웅을 가린다.

국내 바둑의 주류로 통하는 ‘4대천왕’ 멤버인 최철한과 박영훈이 기성전을 놓고 애면글면 속을 태우고 있

는 사정이 빽하다.

최철한 9단은 명성이 걸맞지 않게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무관이다. 최철한이 누군가. 지난 2004년 기성전에서 이창호를 침몰시킨 데 이어 국수, 천원전 등 국내대회 3관왕을 차지하는 등 기세가 하늘을 찌르지만 지난 해는 그야말로 죽을 썼다.

2년째 타이틀을 지켰던 국수를 이창호에게 헌납한 데 이어 입신 최강전, KBS바둑왕전 결승에서도 준우승에 그친 것이다.

또 GS칼텍스배에서도 이세돌 9단을 도전자로 맞았지만 이 마자 지켜

내지 못해 이빨 빠진 ‘독사’가 됐다.

한국바둑리그에서 좌장으로 출전해 우승을 일궈냈지만 개인 타이틀에 대한 숙원을 풀기에는 불충분했다.

최철한 9단이 기성 타이틀에 목을 매는 이유다.

특히 9단은 지난 2004년 기성전 타이틀을 박영훈 9단에 빼앗긴 뒤 이듬해 리턴매치에서도 2승3패로 무릎을 꿇은 바 있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수상에 나서는 박영훈도 사정이 절박하다. 지난해 제1기 원예계 준우승, 제3회 도요타엔소배 4강 진출, 제11회 삼성화재배 16강 등 명성에 어울

리지 않는 성적으로 한해를 보냈다.

2년째 기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타이틀이 없다. 최 9단에게 기성전을 내줄 경우 무관으로 전락하는 치욕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적으로 능심리면비에서 4연승을 달성하는 등 우승의 밀가루를 끊은지만 이를값을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서 올해 들어서도 별다른 재미를 보지 못하고 있다. 50기 국수전 도전자 결정전에서 신예 윤준상에게 덜미를 잡힌 것도 두고 두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다.

지난 12일에 열린 제26기 KBS바둑왕전에서는 복진석 9단에게 결정적인 일격을 당해 대진표에서 사라지는 치욕을 맛봐야 했다.

당시 박 9단은 목 9단에게 8승 1패



로 절대 우위를 지켰었다. 지난 2004년부터 한 판도 내주지 않고 5연승을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한 일격이라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그만큼 타이틀을 지키는 박영훈 9단의 심경도 절박할 수 밖에 없다.

하나의 타이틀을 놓고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최철한과 박영훈의 행보에 관심이 솔쏠리는 이유다.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내달 국내 첫 시니어 VS 여류팀

‘반상 性대결’ 열린다

‘시니어의 노련미나, 여류의 깊음이네’

국내 최초의 ‘반상 성대결’ 단체 대항전인 제1회 지역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본선이 오는 3월부터 개막한다. 이 대회는 지난 12일 개막식을 갖고 현재 예선전을 벌이고 있다.

‘지지옥선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은 만 45세 이상의 시니어팀과 여류팀에서 각각 12명씩 출전해 한 명씩 대결을 펼쳐 이기면 계속 두고 지면 끝내로 탈락하는 연승방식의 단체전.

시니어팀에는 국내 랭킹에 따라 조훈현 9단과 서봉수 9단, 오규철 9단이 시드를 배정받았고 이홍렬 9단은 주최측이 지명한 와일드카드로 출전한다. 나머지 8명은 예선전을 통해 선발된다.

여류팀은 여자랭킹 1, 2, 3위인 류이나이웨이 9단과, 조혜민 7단, 김혜민 4단과 함께 와일드카드인 박지은 6단의 출전이 확정됐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오규철 9단〉

〈루이 9단〉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산 온라인 경매정보 사이트를 운영하는 지지옥선은 본선 경기에 사용된 바둑판에 대국자들의 친필 사진을 담아 지지옥선 사이트(<http://www.ggi.co.kr/>)를 통해 경매에 붙인 뒤 수익금 전액을 소년소녀 가장돕기 성금으로 기증할 예정이다.

3연승을 기록한 기사에게는 상금 200만원이 주어지고 이후 1승을 추가할 때마다 상금도 100만원씩 주어질 것이다.

이번 대회는 ‘반상의 성대결’ 뜻지 않게 ‘사랑의 경

매’를 펼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부동